

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란?

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목적에 부합하고
명시된 차원에서 세계적인 음식도시로서의
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시민의 창의력을 배경으로
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의 맛을 계승·보존 및
연구개발을 통한 물론 세계 음식창의도시간
문화적 교류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
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.

푸드스타일리스트 이지은



경력사항

- 푸드하다 스튜디오 푸드스타일링 대표
- 열제이파티 파티서비스 대표
-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강의/식공간연출 교원
- 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상임이사
- 해전대학교 푸드스타일링 겸임교수

주요활동

- 경기농업기술센터 전통음식 전시
- 제9회 푸드엔 테이블박람회 테이블세팅 교육부
장관상 수상
- 에니스프리 그랜들레이베스티얼 공간연출
- 일산 킥박스 스위트코리아 테이블세팅 초대
전시
- 미국상공회의소 AMCHAM Inaugural Ball
파티연출
- 월드한식페스티벌 전시테이블 연출
- 현대자동차 컴핑페스티벌 공간연출



2017
전주미식테이블웨어전시회

전주,
食을입다



TEL 063-255-4393 FAX 063-232-4393
55000 | 전주시 완산구 완우길 20 (경원동3가 14-2)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

· 일시 | 2017. 10. 26(목) - 10. 29(일)

· 장소 |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홍보관 · 주최 · 주관 | · 후원 |

Exhibition I

테이블, 옷을 입다.



테이블웨어는 그릇과 접시, 잔, 수저세트 등 식기에서부터 테이블클로스, 조명 등의 소품, 식탁, 의자 등 공간배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미식 관련 콘텐츠다. 오래된 할머니의 낡그릇은 향수 어린 디너웨어이며, 가을날 들뜬 흰 코스모스도 멋진 센터피스가 될 수 있다. 첫번째 전시는 테이블웨어의 5가지 기본 구성 요소 전시이다.



린넨(Linen)
식탁보, 식탁매트, 냅킨 등 식탁 위를 덮는 천 종류를 모두 일컫는 용어입니다.

디너웨어(Dinner ware)
접시, 샐러드볼 등 음식을 담는 모든 식기를 디너웨어 라고 합니다.

컷러리(Cutlery)
스프, 포크, 나이프 등 식사 시 사용하는 기구들을 일컫며, 플랫폼웨어라고도 불립니다.

글라스 웨어(glass ware)
유리로 만든 와인잔, 물잔, 맥주잔 등 용이나 용도를 담아 마시는 것을 글라스웨어라고 합니다.

센터피스(Centerpiece)
테이블 가운데를 장식하지 않고 꼭 장식하는 요소를 일컫며, 꽃, 과일, 바구니, 양초, 소품 등 을 말합니다.

센터피스(Centerpiece)
테이블 가운데를 장식하지 않고 꼭 장식하는 요소를 일컫며, 꽃, 과일, 바구니, 양초, 소품 등 을 말합니다.

Exhibition II

테이블, 매너를 입다.



현대의 다이닝 공간에서 테이블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테이블세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이며 한식,양식,중식,일식의 4가지 컨셉을 통해 나라별 테이블세팅을 보고 매너를 엿볼 수 있습니다.

